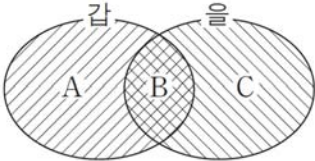




6. (가)의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사람의 본성은 선(善)을 즐기고 악(惡)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이 없다. 인간은 선과 악을 선택하여 행할 수 있는 자주지권(自主之權)을 가지고 있다.</p> <p>을: 사람의 마음이 곧 생리(生理)이다. 인간이 능동적으로 도덕적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은 마음 속에 그 이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p>
(나)	 <p style="text-align: right;">&lt;범례&gt;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보기>

ㄱ. A: 인간은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을 지닌다.  
 ㄴ. A: 인간은 선을 좋아하는 기호(嗜好)를 부여 받았다.  
 ㄷ. B: 인간은 도덕적 주체로서 행위하는 존재이다.  
 ㄹ. C: 인간은 후천적인 노력으로 덕을 형성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그림에서 학생들이 모두 적절한 대답을 했다고 할 때, A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타인의 삶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도덕적 선행을 통하여 신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③ 백성의 신뢰를 잃은 군주의 교체를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④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兼愛]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⑤ 상벌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8.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모든 만물은 원인[因]과 조건[緣]의 결합이며 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한다. 이러한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와 현상은 없다.

- ① 만물은 상호 의존 관계에 놓여 있는가?  
 ② 탐냄, 성냄, 무지함이 인간의 본성인가?  
 ③ 나와 남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야 하는가?  
 ④ 윤회의 법칙을 따르면 해탈할 수 있는가?  
 ⑤ 수행을 통해 고정된 자아를 찾아야 하는가?

9. 그림은 동양 사상의 이상적 인간상에 대한 정리 노트이다.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동양 사상의 이상적 인간상

1.   A   : 자신의 사욕(私慾)을 극복하고 진정한 예(禮)를 회복하며 만물과 화육(化育)하는 사람  
 2.   B   : 만물의 근원인 도(道)와 합치되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을 사는 사람

<보기>

ㄱ. A는 선한 본성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사람이다.  
 ㄴ. B는 감각적 지식을 통해 도(道)에 도달한 사람이다.  
 ㄷ. A와 달리 B는 실리보다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ㄹ. A, B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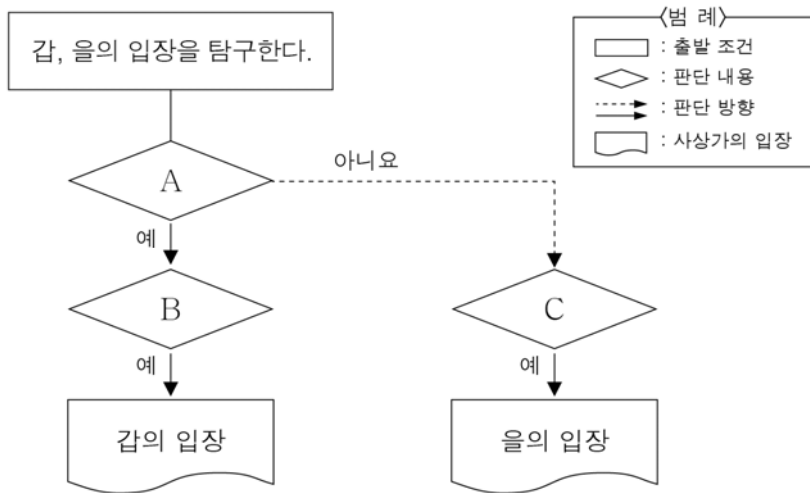
갑: 칠정(七情)과 기(氣)의 관계는 사단(四端)과 이(理)의 관계와 같다. 사단은 이가 발(發)함에 기가 그것을 따르고, 칠정은 기가 발함에 이가 그것을 타는 것이다.  
 을: 칠정과 기의 관계처럼 사단과 기의 관계도 그러하다. 사단과 칠정은 기가 발함에 이가 타는 것이다. 즉, 모든 현상이나 사건은 기가 발한 것이다.

- ① 갑: 칠정은 사단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갑: 칠정은 사단이 형성되는 연원이다.  
 ③ 을: 사단은 칠정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을: 사단과 칠정은 다른 연원을 가진다.  
 ⑤ 갑, 을: 사단과 칠정 모두 정(情)으로 본다.

[11-12] 갑, 을은 동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천하의 사물에 있는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극진히 해야 한다. 사물에 나아가 얻은 마땅히 따라야 할 도덕 원리를 바탕으로 그릇된 기질(氣質)을 바로잡아야 한다.  
 을: 천하의 사물에 있는 이치를 궁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음 밖에 이치가 없기에 마음 안에 누구나 가진 양지(良知)를 자각하고 실천할 따름이다.

11. 갑, 을의 입장을 아래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A: 천리를 보존하고 사욕을 제거해야 하는가?
- ② A: 하나의 이치가 모든 사물 안에 내재하는가?
- ③ B: 타고난 앎을 확충하면 덕을 형성할 수 있는가?
- ④ B: 이론적 학습 없이도 도덕성을 구현할 수 있는가?
- ⑤ C: 타고난 본성을 선이나 악으로 규정할 수 없는가?

12. 다음을 주장한 사상의 입장에서 갑, 을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두커니 앉아서 마음만 닦는 심학(心學)이나 인륜 관계의 학문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심성(心性)의 애매한 개념은 공자도 말한 적이 드물다.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려는 과학적 학문과 세상을 다스리는 데 실제로 쓸모가 있는 학문을 해야 한다.

- ① 우주 만물의 형이상학적 체계를 서술하지 못하고 있다.
- ② 마음 밖에는 어떠한 이치도 사물도 없음을 모르고 있다.
- ③ 도덕적 삶을 위한 수양의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④ 도덕적 실천을 중시하여 지식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 ⑤ 도덕성 문제에 치우쳐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13.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성인의 정치에는 인의(仁義)가 있어야 합니다. 임금이 어질면 백성이 어질지 않을 리 없고, 임금이 의로우면 백성이 의롭지 않을 리 없습니다.  
 을: 성인의 정치에는 인위(人爲)가 없어야 합니다. 임금이 고요하니 백성들이 저절로 바르게 되며, 임금이 무욕(無慾)하니 백성들이 저절로 순박해집니다.

- ① 갑은 인위적인 도덕 규범을 혼란의 원인으로 보았다.
- ② 갑은 덕(德)을 바탕으로 명분에 맞는 다스림을 추구했다.
- ③ 을은 분별적 지혜와 욕심을 버릴 것을 강조했다.
- ④ 을은 도(道)를 바탕으로 다스림이 없는 다스림을 추구했다.
- ⑤ 갑, 을은 백성이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겼다.

14.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 표시를 한 학생은?

문득 깨달아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습기(習氣)는 갑자기 버리기 어려우므로 꾸준한 수행으로 온전한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선정(禪定)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		√		√	√	
교종을 위주로 선종을 조화시켜야 한다.			√		√	√
깨달음을 위한 경전 공부를 우선해야 한다.		√	√			√
단박에 깨친 뒤에도 점진적 수행을 해야 한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5. 근대 한국 사상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백성의 가슴에 심어 주고자 했으며,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라[事人如天].”, “사람이 곧 하늘이다[人乃天].” 등의 가르침을 강조하였다.  
 (나) 유학적 윤리 의식의 붕괴를 깊이 우려하여 서양의 종교와 문물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척양(斥洋)·척왜(斥倭)의 강력한 의리론을 주장하였다.

- ① (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하늘에서 찾는다.
- ② (가)는 유교의 봉건적 질서를 부정적으로 본다.
- ③ (나)는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긍정적으로 본다.
- ④ (나)는 민중을 주체로 하는 새 역사관을 제시한다.
- ⑤ (가), (나)는 서양 학문의 수용을 반대한다.

16.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이상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다수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이데아를 성취한 철학자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참된 이성을 통해 나라를 다스린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타고난 성향에 따라 계급에 맞는 직분을 수행한다.

을: 초승달 모양의 이 섬은 빈곤도 없고 사치나 낭비도 없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6시간만 노동하고, 생산물은 각자 필요한 만큼 나누어 가진다. 그들은 10년마다 제비를 뽑아 집을 교환한다.

- ① 갑은 통치자의 선출에 시민의 동의를 중시한다.
- ② 갑은 통치자가 사유재산을 갖는 것에 반대한다.
- ③ 을은 개인의 능력에 따른 재화의 분배를 강조한다.
- ④ 갑은 계급의 소멸을, 을은 계급의 조화를 주장한다.
- ⑤ 갑, 을은 궁극적으로 국가가 필요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

17.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괴로움의 진리[苦]는 마땅히 알고 이해하여야 한다.  
 괴로움의 원인의 진리[集]는 마땅히 알고 끊어야 한다.  
 괴로움이 사라지는 진리[滅]는 마땅히 알고 얻어야 한다.  
 괴로움이 사라지는 길의 진리[道]는 마땅히 알고 닦아야 한다.

————— <보 기> —————

ㄱ. 진리를 깨달은 인간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ㄴ. 어리석음[無明]과 집착[愛慾]이 괴로움을 만든다.  
 ㄷ. 번뇌가 소멸된 열반(涅槃)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ㄹ. 주체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 고행을 실천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다음 한국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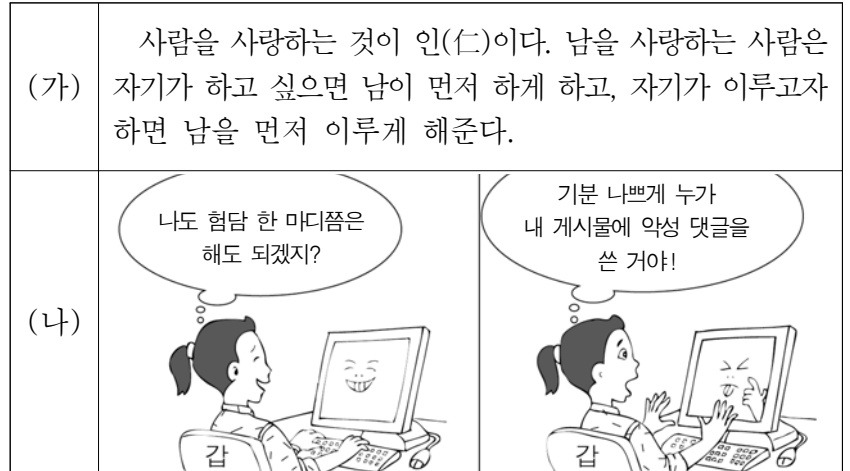
여러 개의 그릇에 담긴 물이 동그렇다거나 네모지다고 할 수 없다. 어떤 그릇에 담기더라도 그 내용물은 언제나 동일하다. 모양의 다름은 기의 국한됨[氣局]이고, 내용물의 동일함은 이의 통합[理通]이다.

————— <보 기> —————

ㄱ. 이는 형태가 없고 작용은 있다.  
 ㄴ. 기는 형태가 있으므로 제한적이다.  
 ㄷ. 이는 발하는 까닭이며, 기는 발하는 것이다.  
 ㄹ. 이와 기는 현상에 있어서 분리되어 존재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가)의 관점에서 (나)의 갑에게 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터넷 예절을 배워 이기적인 본성을 바로잡으십시오.
- ② 댓글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 ③ 남의 마음을 내 마음같이 여기는 자세로 댓글을 쓰십시오.
- ④ 타인을 의식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십시오.
- ⑤ 좋은 댓글은 추천하고 악성 댓글은 벌을 받도록 신고하십시오.

2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 근대 한국 사상 (가), (나)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십시오.

(가) 일원(一圓)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모든 부처와 모든 성인의 심인(心印)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크고 작고 있고 없음의 분별이 없는 자리이다.

(나) 도의(道義)가 어긋나 원한이 맺히고 쌓여 세상에 재앙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신도(神道)를 바로잡아 원한을 풀고 상생[解冤相生]으로 세상을 고치리라.

◎ 학생 답안

(가)는 ㉠ 생활 불교를 반대하여 속세를 떠난 깨달음을 강조하였으며, ㉡ 우주의 근본 원리를 원모양의 일원상으로 표현하였다. (나)는 ㉢ 무속과 도가의 사상을 재해석하여 사상적 기초를 닦았으며, ㉣ 원한을 풀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와 (나)는 ㉤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며 후천개벽(後天開闢)을 내세웠다. ... (후략) ...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